

- 주요 뉴스: 미국 금융시장, 연준의 큰 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 확대
 - 미국 8월 주택착공, 전월비 증가. 다만 금리상승 등으로 주택경기 부진 지속 예상
 - ECB 총재, 경제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필요
 - 중국 인민은행, 주요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. 위안화 약세 등을 고려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9월 FOMC 앞두고 경계감 강화되며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1.1%], 달러화 강세[+0.4%], 금리 상승[+7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11주 만에 최저치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여타 주요국과의 금리차 확대 등이 영향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5%, 0.4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역대 고물가 우려 등으로 '1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91.9원, +2.4원) 0.3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9/20일	9/19일	전일대비			9/20일	9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55.9	3,899.9	-1.13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6%	3.49%	7bp
	유럽	403.42	407.87	-1.09%		독일	1.93%	1.81%	12bp
	중국	3,122.4	3,115.6	0.22%	CDS 5y	한국	38bp	34bp	4bp
	일본	27,688	휴장	0.44%		중국	86bp	76bp	10bp
	한국	2,367.9	2,355.7	0.52%	위험 지표	EMBI+	-	430	-
환율	달러지수	110.19	109.74	0.41%		VIX	27.16	25.76	5.43%
	유로화	0.9971	1.0024	-0.53%		WTI유	84.45	85.73	-1.49%
	엔화	143.75	143.21	-0.38%	원자재	구리	354.8	355.8	-0.27%
	위안화	7.0183	7.0050	-0.19%		금	1,664.9	1,675.8	-0.65%
	원화	1,389.5	1,393.6	0.3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금융시장, 연준의 큰 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 확대

- 9/20일 금융시장은 9월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가격 변동이 증폭. S&P500 지수는 장중 2% 가까이 하락한 후 낙폭 줄이며 마감(3855.9 -1.13%). 반면 2년물 및 10년물 국채금리는 모두 상승(각각 3.97% +3bp, 3.56% +7bp). 달러화 지수는 상승하며 20년 만에 최고치(110.2 +0.41%)
- 이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0.75%p 인상에 나설 뿐 아니라, 내년 상반기까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 등이 반영. 또한 10년물 국채금리가 '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경기둔화 우려가 증폭
- BlackRock의 Kristy Akullian은 최근 금융시장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식 비중 축소 및 채권 매입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언급. 아울러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전망도 투자심리 저해. BNP Paribas의 Greg Boutle은 연준의 긴축기조가 유지되는 한 기업의 실적개선은 어렵다고 지적
- Legal &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의 John Roe는 연준의 확고한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가 부각되면서 금리의 정점 통과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. 연준 뿐 아니라 ECB,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도 금리인상에 적극적
- Citigroup의 Andrew Hollenhorst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. 한편 이날 유가는 OPEC+의 8월 생산량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했으나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(WTI유 84.5달러 -1.49%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8월 주택착공, 전월비 증가. 다만 금리상승 등으로 주택경기 부진 지속 예상

- 해당 건수는 연환산 157.5만건으로 전월(140.4만건) 수준 상회. 이번 결과는 임대료 증가 등에 따른 다세대 주택건설 급증 등에 기인. 하지만 모기지 금리의 상승과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주택경기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한편 8월 건설허가 건수는 연환산 151.7만건으로 전월(168.5만건) 대비 감소하며 '20년 6월 이후 최저. 금리상승 등으로 주택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, 재고 수준이 낮아 주택가격의 폭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

■ ECB 총재, 경제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필요

-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대응 및 수요둔화 유도가 가능한 정도의 금리인상이 요구된다고 발언. 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징후가 발생한다면 정책금리 역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

■ 스웨덴 중앙은행, 1.00%p 금리인상 단행.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 목적

-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1.75%로 결정했으며, 이번 인상 폭(1.00%p)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. 시장에서는 스웨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어 당분간 큰 폭의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

■ 우크라이나, IMF 및 세계은행에 수백억달러 규모의 맞춤형 특별지원을 요청할 계획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정부는 해당 방안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련 비용을 충당할 필요. 내년 예산부족 규모는 380억달러로 추정. 현재 친우크라이나 국가들은 IMF 등을 통해 200억달러를 마련한 것으로 보도

■ 중국 인민은행, 주요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. 위안화 약세 등을 고려

- 현행 1년 및 5년 LPR(각각 3.65%, 4.30%)을 모두 유지. 당국에서는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에 의한 위안화 약세 심화 및 자본유출 우려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금리인하 기조를 일시 중단. 다만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
- MUFG Bank의 Macro Sun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양호했으나, 경기회복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인민은행은 4/4분기에 다시 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

■ 일본 8월 근원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, 일본은행 목표치 상회하며 8년래 최고치

- 해당 상승률은 2.8%를 나타내 일본은행 목표(2.0%)를 넘어섰으며, 이번 결과는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. Norinchukin Research Institute의 Takeshi Minami는 2% 이상의 근원 CPI 상승률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일본은행의 물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21 현지시각 기준)

- 9월 FOMC, 연준 파월 의장 및 ECB 데 쿼도스 부총재 회견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유럽 금융시장, 안전자산 부족으로 다양한 위험에 직면 - WSI

(Europe Is Running Out of Safe Assets)

- 미국은 통일된 채권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에게 안전자산을 제공하고 동시에 통화공급 창구로 활용. 반면 유로존의 경우 각국이 국채발행에 나서고 있지만,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의 국채와 같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융자산이 매우 부족
- 담보물 활용이 가능한 안전자산의 부족은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여 시장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, 특히 ECB 통화긴축에 취약한 국가는 더 큰 영향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. 이에 유로존에서도 시장안정을 위한 통일된 채권시장이 필요

■ 국제 유가, 원유공급 부족에도 수요둔화 가능성에 하락세 지속 예상 - Financial Times

(The oil futures price predicament)

- 주요 석유업체들은 공급 부족 장기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. 실제로 최근 OPEC+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음에도 공급축소를 결정하는 등 고유가 선호 의지를 피력
- 그러나 원유 선물시장 참여자들은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가 하락을 관측.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및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공급 축소보다 더욱 현저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.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부족 상황에서도 유가 하락 전망으로 석유업체들이 시추작업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

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동조화, 글로벌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 - 블룸버그

(The Era of the Global Central Bank May Have Arrived)

■ 미국 주거비 상승,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 - WSI

(Climbing Housing Costs Could Prop Up Inflation for a While)

■ EU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, 안-허가 절차 개선-비용 부담 극복이 요구 - Financial Times

(Slow growth knocks the wind out of EU renewable energy target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